



서두인칩 유영욱 대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벤처인

‘삐릴릴리~, 삐릴릴리~’

거리마다, 건물마다 심지어는 깊은 산 속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휴대폰. 요즘은 어린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까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지만 20~30년 전만해도 길을 가며 자유롭게 통화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 껴 볼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런 때가 있었냐 통화는 물론 문자에 동영상 전송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비단 휴대폰뿐만이 아니다. 노트 두께만한 노트북에 벽걸이 TV PDP, 이동용 위성통신까지 그야말로 우리는 최첨단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최첨단 시대를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속의 보이지 않는 핵심기술 즉, 반도체 때문이다.

서두인칩의 유영욱 대표(56)는 이런 핵심 반도체기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자랑스런 벤처인이다. 유 대표는 KAIST 석사,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선임연구원 실장, KIET 미국사무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 등 국내 반도체산업의 1세대로 화려한 경력을 소유한, 이른바 잘나가는 엔지니어였지만 지금은

반도체 설계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제 1의 기업인 서두인칩을 이끄는 벤처 CEO. 대부분의 엔지니어가 선망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자리를 박차고 기업가로 변신한 유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의 근무경험을 잊을 수 없다.

“당시 실리콘밸리의 근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반도체 칩의 설계기술이나 자동화, 디자인 등 우리와는 비교가 안되었죠. 우물 안 개구리 격인 제 모습을 발견하고 하루 빨리 우리도 저런 기술을 보편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온통 저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성공은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자신의 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할 때를 기다리며 반도체칩을 설계에 몰두한 유 대표는 1989년 1월 연구소를 시작하고 Valid Logic 한국지사장을 맡으며 경영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내디뎠다. 1년 3개월 동안 Valid Logic 한국지사장을 맡으며 경영수업을 착실히 쌓은 유 대표는 이듬해인 1990년에 현 강길순 전무이사 등 3명의 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설계용 S/W와 ASIC(주문형반도체)을 개발하는 서두로직을 창업하였다.

겪기지 않는 도전정신

40세를 일러 불혹(不惑)이라 하여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고 한다. 새로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엔 조심스럽고 심사숙고해야 할 나이 또한 40대다.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그간 쌓아왔던 기반이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대표는 43세의 나이에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과감히 선택했다. 지금처럼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모험이었다.

“반도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연구소나 대기업 등에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 무쌍하게 움직이는 첨단기술/제품의 시대가 10년 뒤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도 가정했지만 실패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연구원 생활을 탈피하고 싶었고 엔지니어로서 나의 기술과 능력을 국가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서두인칩 창립초기 직원 동반대회 모습

유 대표는 40대라는 나이에 시작했기에 실패할 수 없었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의 첫 작품인 PC기반의 전자설계자동화 S/W인 마이캐드(MyCAD)는 인텔, 모토롤라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채택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서두로직의 ASIC사업부문을 분리해 1997년 설립한 서두인칩 역시 급성장을 이루며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10년 앞을 내다보며 꾸준히 준비하고 연구개발에 노력한 결과가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유 대표는 지금의 벤처버블 현상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런 검증과정을 통해 벤처의 옥석이 가려지고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익숙해져야 만이 진정한 벤처로 거듭 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업은 단기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10년 이후의 시장상황을 예측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IT(정보통신) 분야는 3~4년 만에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유 대표는 눈앞의 대박을 쫓기보다는 10년 후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창업의 첫째 요소로 ‘창업자 자신이나 창업팀 구성과 회사에 대한 미래 전망’을 꼽는다. 회사를 만들면 일단 별개의 개체로 굴러가는 가지만 이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장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중요한 요소로 인력을 꼽는다. 우수 인재를 회사성공의 열쇠로 보고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재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영인이나 중간 경영인 또 전문 기술자 등 총체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 속에서 유 대표는 KAIST 학부과정 졸업생들을 매년 수 명씩 입사시켜 KAIST, 한양대, 서강대 등에 석박사 과정을 마치게 하는 등 고급 인력 양성에 주력했다.

현재 전임직원 대비 연구인력의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재무, 마케팅, 기획, 조직관리 등 경영부문에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우리나라는 세계 메모리반도체 공급량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는 세계 메모리반도체 생산국이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시장은 메모리분야 비중은 약 18%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메모리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국내의 거대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자체 공급량이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ASIC과 같은 비메모리분야 육성에 대한 정부나 업계의 정책과 투자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지속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계 최고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서두인칩의 성장과 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액의 20~60%를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신기술개발과 신기술 축적에 노력하고 있어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서두인칩은 지난 2000년 디지털미디어산업에 진출, 위성용 셋톱박스 분야를 주요 사업군으로 확장시켰다. 반도체와 통신칩, 디지털미디어기기 등 분야에서 서두인칩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유 대표는 “10년 후에는 최소한 1~2개 제품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인정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는 자랑스런 벤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